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10. 10 ~ 2021. 10. 30 제255호



포토에세이



▲ 르완다 키갈리의 과일 시장. 제공: WMM

## 하나님이 맺혀주신 인생의 열매

연두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의 수박, 주황빛 오렌지, 노란 바나나. 형형색색의 탐스러운 열대과일들이 르완다의 한 시장 안에 수북이 쌓여 있다. 발을 일구고 씨를 뿌려 햇빛과 물을 주고 열매 하나가 맺히기까지 농부의 수고와 간절함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룬 비와 늦은 비

를 주시고 식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햇빛을 비춰주셨던 돌보심이 있었다. 이같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생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영혼이 안식하게 된다. 그렇게 맺혀진 인생의 열매들로 열방

의 영혼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한다.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룬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신명기 11:13-14) [GPNWS]

## 아프간 기독교인 구출 작전 지속돼... 기도와 관심 필요

탈레반, 샤리아법 따른 사형과 손발 절단 등 잔인한 처형 도입 선언

지난달 말일 미국행 비행기를 끝으로 해외 출국길이 닫힌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양한 도움의 손길로 아프간을 벗어나는 아프간인들이 있어 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요망된다.

최근 본지 통신원에 따르면, 공식적인 아프간 출국길이 막혀 있지만 9월 말 현재까지 공개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수백여 명의 아프간인들이 이웃나라로 탈출에 성공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20년만에 정권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사형과 손발 절단 등의 샤리아법에 의한 잔인한 처벌을 시사하며,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탈레반 참시자 중 한 명이 자 범 집행관인 몰라 누루딘 투라비는 “손가락을 절단하는 것은 치안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이러한 처벌을 공공장소에서 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탈레반 집권 당시 살인범은 공개된 장소에서 총살당했고,

절도범은 손, 강도범은 손과 발을 절단 당했다.

이에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기구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샤리아에 대한 탈레반식의 엄격한 해석이 이슬람에서 개종한 아프간인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배교자로서 사형을 포함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8000명에서 1만 2000명 사이로 추정되는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로, 극심한 박해를 피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지낸다.

ICC 남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윌리엄 스타크는 “지난 8월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이 아프간을 거의 장악했을 때, 아프간 지하교회와 함께 일해 온 많은 사역자들은 위협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고 전했다.

본지 통신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아프가니스탄인들 가운데 특히 기독교인들의 구출사역이 이뤄지

고 있다. 현재까지 약 640명 정도가 이 팀을 통해 인근 파키스탄 등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또한 북미에서는 8월 말까지 탈출시킨 12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수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 주변국들이 200만 이상의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상태다.

스타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현재 공동체에 대한 거센 위협으로 인해 숨어 있으며, 탈레반에게 모임을 자제하라는 경고와 협박을 받고 있다. 이어 스타크는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나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특별한 지위”라며 “많은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여권도 없어서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없는 상태다. 또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GPN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39)

## 모든 죄의 배후에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우상이란 마음 중심으로 애착을 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섬기고 경배하는 것,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에너지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한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아주 세련된 모습이어서 좀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운 우상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은 물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현대판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인정의 우상’이 있습니다. 명예, 평판, 교단의 인정

이라는 우상. 하나님께 인정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다급한 현실이라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학벌, 지위, 유명세, 성공에 지독하게 집착합니다. ‘소유의 우상’도 있습니다. 소유가 많고 적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만 원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쾌락의 우상’도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 속에서 TV는 이제 존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도, 손에 들고 목에 걸고 귀에 꽂

아서 아예 숨 돌릴 틈 없이 낫을 잃을 만큼 재미있고 짜릿하고 기막힌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눈으로 가담하든지 아예 더 적극적으로 몰입으로 가담하든지, 거기서 헤어나올 줄 모릅니다. 이 쾌락의 우상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생겨서 여기에 중독된 이들은 삶도, 심지어 사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는 절대 중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반드시 어느 편에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죄는 사탄의 완벽한



일러스트=김경선

도구입니다. 죄를 캐다 보면 그 밑바닥에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가공할 만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사탄으로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숨어서 “이건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네 만족을 위한 거지.”라고 완벽한 자아숭배의 모습으로 기막히게 위장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즐기며 떠나기 싫어하고 결단을 유보하고 있는 이 죄 문제는 단순한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 죄의 문제, 즉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GPN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뭘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1670-3160



# 위클리프, 코로나 팬데믹에도 IT기술로 복음전도 성경 번역 진행



▲ 번역된 성경이 온 열방의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있다. 출처: Wycliffe Bible Translators UK 캡처

성경 번역 선교단체 위클리프협회(Wycliffe Association)가 전도가 어려운 지역에 오디오 성경과 위성 등 첨단 IT(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복음전도와 성경 번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존 체스넛 위클리프협회 회장은 "위클리프 미국 본부가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동남아시아 지역사회에 (MP3플레이어에 녹음된) 오디오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했고, 소문이 퍼지자 이에 대한 요청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체스넛 회장은 이어 "오디오 성경이 배포된 후 몇 달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게 됐다. 세계적인 유행병 동안 그

들의 필요에 맞는 언어와 형태로 성경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의 번역가들은 모바일 앱과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청각 장애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미국 수화 커뮤니티'는 최초의 수화 성경 완역본의 출간을 기념한 바 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성경 참여 훈련을 받은 청각 장애인들이 11개의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복음을 나뉘며, 탄자니아의 번역가들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전 지침 교육 비디오를 제작했다.

이에 대해 체스넛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지역 번역팀들은 '디지털 성경 도서관'이라 일컫는 데이터베

이스와 다른 온라인 자료들을 통해 풍부한 주석 및 번역 자료를 손쉽게 사용했다. 번역가와 성경학자들이 공동 소프트웨어를 통해 계속 번역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끔 전 세계적인 협력을 가능케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은 최근 성경 번역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인터넷 연결 부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스타링크 위성이 추가되면 가장 먼 곳에 있는 위성들도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된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교육, 의료 및 기타 자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즉 천국 본향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분의 편지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 평가했다.

체스넛 회장은 "첨단기술이 미진도 지역사회로 가는 길을 제공하는 반면, 고국에 거주하지 않는 디아스포라들과 번역 작업에 또 다른 문을 열고 있다."면서 "아직 성경 번역이 필요한 약 1900개의 언어 집단 중 최소 절반은 외국인이 쉽게 일할 수 없는 지역에 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번역 프로젝트는 국경과 대륙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GPNEWS]

## 코로나로 주춤하던 선교... 인터넷 선교로 재개 움직임

코로나19로 중단되고 주춤하던 선교와 전도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선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인터넷 선교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복음 콘텐츠 제공, 온라인 성경공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엔 스마트기가 보편화되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같은 정보통신(IT) 기술과 기존 또는 신규 온라인 플랫폼이 적극 활용되면서 다양한 선교적 접근방법들이 생겨났다.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8년 말부터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39억 명을 넘어섰고, 통신장비업체 시스코(CISCO)의 연례 인터넷 보고서에는 2023년에는 전 세계 인구 3명 중 2명인 53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이런 상황 속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선교는 필수로 떠올랐다.

실제로 선교사들은 구글의 무료 웹서비스인 '클래스룸(Class Room)'을 사역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나 말씀 묵상·나눔(QT), 온라인 예배교실, 언어 교육 등을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식이다. 구글 계정만 있으면 수업을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고, 과제 제출, 자료 공유, 성적, 의견 교환도 이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미 대중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다국어로 운영하는 방법도 선교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터넷 선교를 시도하는 선교사들은 이슬람권 국가처럼 공식

적인 선교 활동이 어려운 곳에서 특히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동일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국경없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구도자와 비대면으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아랍권에 성경을 보급하고 제자화 하는 '라스트콜' 사역을 진행 중인 허드슨 선교사는 "예멘에서 거리상 타격을 정해 페이스북 복음광고를 했을 때, 이를 본 7000명 가운데 400명이 성경에 관해 질문했으며, 200명은 PDF성경파일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슬람 국가(ISIS) 대원 출신 남성도 페이스북으로 복음을 접하고 최근 세례를 받았다."고 전했다. [GPNEWS]



▲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도학교. © 복음기도신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독일 트랜스젠더 여성, 국회의원 당선... 성적 타락 가속화 우려

독일에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치러진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성전환자 여성 의원 2명이 당선 돼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신분증상의 성별 변경 승인 절차 개선, 레즈비언들의 입양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포비아에 대항하는 전국적 행동 계획 및 연방 차별금지법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에 다시 영적 각성을 허락해주시시오.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 브라질, 코로나 사태 이후 200만 가구 극빈층 전락... 빈곤 심화

브라질에서 코로나 발발 후 2년 6개월 동안 최소 200만 가구가 극빈층으로 전락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최근 브라질 뉴스포털 UOL이 보도했다. 극빈층은 1인당 월소득 89헤알(약 1만 9770원)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이들은 대부분 노숙자로 지내거나 판잣집에 살며 상시로 끼니를 걱정한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한계에 이른 브라질 정부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들이 끼니의 해결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브라질 교회들이 주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기회로 삼아주시시오.

### 북한 전문가들, 文 대통령의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어렵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한국 내 다수 전문가들이 선부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보도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과 중국의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논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종전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며 올바른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북한이 무력으로 상대와 자신을 모두 죽이는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핵무기가 아닌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나라로 회복되길 간구합니다. [G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10월 11일 ~ 10월 30일

**10월 11일 ~ 10월 16일** 10.11(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 010-4128-0448, 10.11~15(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0.11~15(11~17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10.12(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0.15(0시)~16(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람공동체(정\*\*)010-3697-0641, 10.15~16(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생교회(김\*\*)010-3106-3632, 10.15(10시)~16(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5교회 진행중.

**10월 18일 ~ 10월 23일** ▶두미교회 / 경남 통영(이\*\*)010-4734-8567, 10.18~22(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0.18~23(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0.19(10시)~20(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10.19~22(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0.20(0~24시) ▶제주 초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10.21(21~23시) ▶경기 화성 / 예수센터(온라인,중)(박\*\*)010-5541-4891, 10.21~22(09~21시) ▶전북 전주 / 주소망센터(최\*\*)010-4661-4039, 그 외 7교회 진행중.

**10월 25일 ~ 10월 30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경기 광주 / 문광교회(최\*\*)010-3380-5781, 10.25~29(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0.26,28~30(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0.29(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7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여성 인권 없는 이슬람 문화의 난민 아프간 남성... 여성에 위협적 존재

이슬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자유세계에서 여성 대상 범행 잇따라

잔혹한 탈레반의 통치권을 벗어나 아프가니스탄 탈출에 성공한 아프간 난민들이 미국 영토나 미군 통제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도 여전히 인권침해와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아프간 남성 2명이 위스콘신주 포트 맥코이 미군기지에 머무는 동안 아동들을 강간하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질식사시킨 혐의로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바흐룰라 누리(20)가 미성년자 폭행 및 강간 미수, 미성년자 강간 3건, 폭력 혐의 1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장에는 피해자들이 16세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보다 4세 이상 어리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아프간 난민 모하마드 하룬 이마드(32)는 배우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게 이마드가 “자신을 탈레반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뒤 미국으로 온 두 사람은 연방수사국과 포트 맥코이 경찰서의 조사를 거쳐 기소됐으며, 현재 데인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바흐룰라 누리는 최소 30년, 최대 종신형을 받게 되며, 이마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사건은 아프간 남성의 폭행 사건 이상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아프간의 문화권에서 남성이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외부 사회에 드러나지도 않았으며, 누구도 문제를 삼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이 같은 행동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이다. 미국 지역의 사법 체계는 아프간과 판이하기 때문이다. 난민들이 이런 이슬람식 삶의 양태를 지속하는 한 난민들은 미국뿐 아니라 자유주의 세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동일한 범위를

저지를 것이다.

## 아프간 소녀들, 미군기지나 환송 장소서 성폭행·결혼 강요당해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포트 맥코이 미군기지로 이동한 나이 어린 신부들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환송 장소에 있던 다른 아프간 소녀들이 나이든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고 결혼을 강요받았다. 이런 증언 이후 국무부는 다른 미국 정부 기관에 ‘긴급 지침’을 요청했다. 지난달 말 플로리다의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 군 지휘소에 보낸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포트 맥코이로 이송된 일부 나이든 남성들은 한 명 이상의 부인이 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대책 본부 SitRep. No. 63’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포트 맥코이의 직원들은 일부다처제 가정뿐만 아니라 성인 아프간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 미성년 여성의 여러 사례들을 보고했다. 국무부는 긴급 지침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국 관리들이 워싱턴에 보낸 외교 문서에 따르면, 아부다비 도시에 사는 많은 소녀들은 그들이 ‘남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도착한 수천 명의 아프간인 중 약 1만 명이 추가 보안 검색을 받았으며, 이 중 100명은 “탈레반이나 테러 단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난민을 품어야 하지만, 난민 수용은 문화적 배경, 성장 배경, 자립 능력, 범죄 배경 등을 모르는 채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다문화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의 나라에서 행하던 관습이 문화적 다양성 법률이라든지, 다문화 법이라든지, 조례로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외국인 인권 활동가라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고, 그것이 침해당하면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교육되기

때문에, 그 결과 해당 국가에 맞추어 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문명국가의 질서는 점점 해체되어 버린다.

한편, 단기 노동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집에서 하지 않던 노동을 한국에 와서 감당해 낸다. 그리고 기한이 되면 귀국하기에 이런 방식은 부작용이 적다.

‘세계 평화’를 주장하며 ‘국경 해체’를 주장하는 이상주의자들에 의해 외국인을 무작정 받아들여 다문화가 존재하게 될 때 내부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소수자 보호정책에 의해서 결국 자국민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미 북유럽 등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동성애와 근친상간, 아동살해를 정죄하



▲ 아프가니스탄 여성. © pixabay

시면서, 그러한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한다면 앞선 민족들처럼 땅을 잃고 쫓겨나리라고 경고하신다. 흥미롭게 동성혼을 주도한 유럽은 이슬람 이민자와 난민으로 점점 이슬람국가화 되어 가며 공포를 느끼고 있다. 미국도 민주당이 동성애·성해방 정책을 하는데, 외국인 유입 정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을 유입시켜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거나 불법

투표에 이용하여 권력을 영구적으로 누리려는 욕심이 나라를 외국인의 것으로 변모시켜 가는 것이다.

아프간 사태 이후, 난민 유입을 고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난민 문제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자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GPNEWS]

## G&P 신간 | 변화하는 비서구 선교

### 비서구 선교의 시대, 한국 선교의 진로를 모색한다

세계 선교가 서구 국가에서 비서구 국가로 옮겨가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와 선교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서구 선교가 2000년간 축적한 선교적 노하우를 어떻게 섭렵해 다음세대 선교와 제2, 3세계 선교적 체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까? 총회세계선교회(GMS) 선교총무를 역임한 조용성 선교사가 오랜 세월 선교현장을 누빈 경험으로 집필한 ‘변화하는 비서구 선교’(기독교문서선교회,CLC)는 이런 고민과 사색의 산물이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세계 10대 기독교 선교 국가 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한국,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필리핀, 중국 같은 비서구 교회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서구 선교시대를 맞아 한국 선교는 서구 선교의 경험된 자료와 평가, 비판을 통한 시행착오를 방지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이런 목직한 주제를 선교 현장에서 일고 있는 현상들을 조망, ‘현장에 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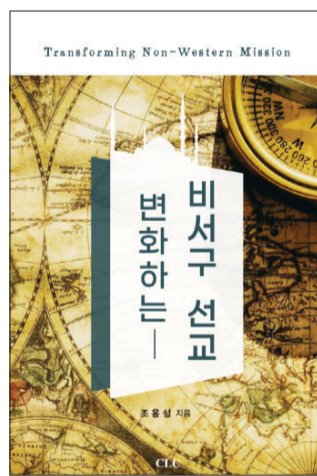
는 마음으로, 선교 이론과 현장 선교를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집필은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이뤄졌다. 21세기 비서구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과 통찰, 선교 이슈, 선교 동향, 선교 전략이 그것이다.

패러다임 전환과 통찰을 다룬 1부는 비서구 선교 운동의 역사와 동향 외에도 포스트코로나 19 바이러스 시대에 세계질서 재개편과 변화하는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도는 세상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힘이며, 이 시기에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전화통화라는 구체적 제안까지 던지고 있다.

2부 선교 이슈에서도 터키의 페툴라 굴렌운동과 같은 현대 이슬람 동향에서 복음의 공공성 문제, 식탁교제와 선교, 순교와 순직 등 다양한 주제를 섭렵하고 있다.

또 선교 동향의 3부에서는 동방정교회, 남방불교, 키프로스 지역연구 등을 다루고 4부 선교 전략은 구체적인 선교 방향에 대한 제안과 선교사의 삶과 사



조용성 지음 | CLC | 628p | 2만 5천 원 | 2021

역을 통한 경험담을 진솔하게 나누고 있다.

저자는 총신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와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터키 마르마라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미국 그레이스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GMS 본부 사역을 거쳐, 현재는 북사 이프러스에 바울·바나바연구소를 설립하고 순회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GPNEWS]



▲ 고국을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출처: 유튜브 채널 Al Jazeera English 캡처



기획 | 창조 이야기 (62)

# DNA에 관한 어떤 사실도 진화론을 증명할 수 없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진화를 믿는다는 한 교수는 인간의 뇌가 우연히 모인 3파운드의 화학물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그것이 내리는 결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그들은 아이들에게 DNA는 아주 작지만, 그것이 진화를 증명한다고 말한다. 교과서에는 “우리는 분자 생물학으로부터 증거가 있다. 다윈은 모든 형태의 생명이 연관되어 있다고 추측했는데 이 추측은 입증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DNA에 관한 어떤 것도 진화론을 증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육시리보핵산이라고 번역되는 DNA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분자다. 보통사람들은 약 50조 개의 세포를 몸에 가지고 있는데 그 각

각의 세포에 염색체 46개가 들어 있다. 그것들을 모두 추출해 내면 약 2순가락 정도 되고, 그 DNA줄기를 풀어내서 펼치면, 한 사람의 DNA가 지구에서 달까지 약 50만 번 왕복할 수 있다. 진화론자들도 “DNA는 사람이 쓴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우리의 염색체 안의 DNA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저장한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잡한지 DNA속에서 발견한 암호를 적는다면 거대한 그랜드 캐니언을 78번이나 채울 수 있는 만큼의 책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만들기 위한 지시사항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다. 당신 한 사람을 만들려면 엄청 많은 지시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말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시 139:14a, 개역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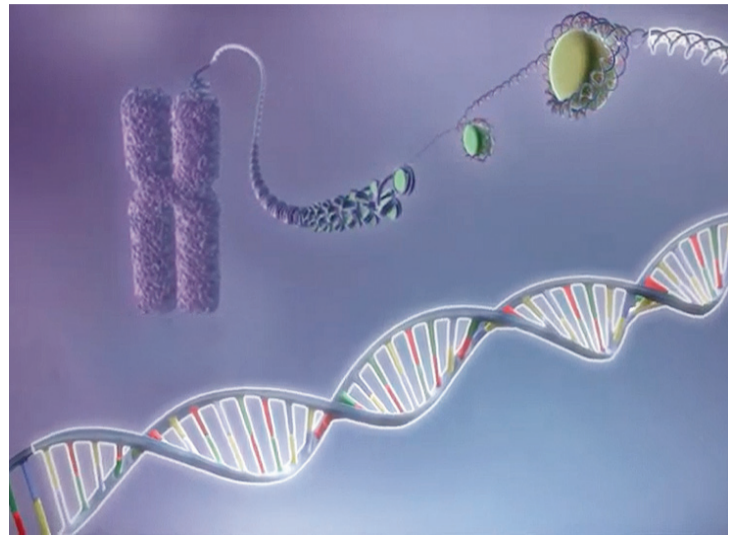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기는 1분에 1만 5000개의 세포를 몸에 더해간다. 그 세포 하나는 우주선보다 더 복잡하다. 그리고 임신부는 1분에

1만 5000개의 우주선을 생산하는 공장에 재료를 공급하고 나사와 볼트와 너트 등 그것을 조립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DNA 하나가 스스로 생길 확률은 10의 11만 9000승의 1로 계산된다. 전체 가시 우주의 지름이 10의 28승 인치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그것은 엄청난 숫자다. DNA는 진화론의 그 어떤 것도 증명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했다.

진화론자들은 항상 그들의 이론에 맞는 것만 비교한다. 그 이론에 맞지 않는 것들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바탕으로 사물의 진화를 이야기한다. 햄스터가 먼저 진화했다고 말할 것이고 천천히 고양이로 진화했다가 카나리아, 개, 침팬지, 악어, 코끼리, 말, 거북이,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임신 기간에 따라 동물들을 배열해 보자. 주머니쥐는 13일 밖에 안 된다. 천천히 햄스터로 진화해서 그 다음에는 쥐(21일), 토



▲ 인간의 DNA는 약 30억 쌍, 침팬지는 DNA가 약 33억 쌍이다. DNA의 개수로 진화를 말할 수 없다. 출처: 유튜브 채널 창조와말씀/THE CREATION & WORD 캡처

끼(32일), 캥거루(40일) 등 목록을 쭉 지나가서 코끼리가 되면 640일로 가장 길다. 이 주장에 따르면 코끼리가 지구에서 가장 진화된 생물이자. 또한 성체의 몸무게에 따라 배열할 수도 있다. 뽕족뒤쥐는 4g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천천히 쥐가 되었을 것이고, 아주 천천히 수백만 년 동안 고래가 되었을 것이다. 왜 진화론자들은 이런 도표를 보

여주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양서류가 포유류보다 5배나 더 많은 DNA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아메바는 1000배나 더 많은 DNA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GPNEWS]

**복음의 능력**

**십자가 죽음의 영광, 능력, 축복**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최고 통치자요, 주님이 되셔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한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義)에 대해서도 죽어야 한다. 또 우리가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셨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영적 삶은 온전케 된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성령님의 강력한 기쁨부음이 임할 것이며, 우리가 희생했던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것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이 길의 매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GPNEWS]

성령님 (A.W. 토저)에서 발췌



선교 통신

## 캄보디아 할아버지들 “이곳에 학교를 세워줘서 고맙소”



▲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과일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다. © 김현호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도 곧 관전면에 있게 하라”(출 28:36-37)

### 학교 허가 위해 간판 작업 진행

학교 허가를 진행하기 위해 간판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간판 작업을 하면서 학교 이름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영어 이름은 그대로 ‘کمព្រឹត្តិវិទ្យាសាលា(KOMPONGPORN VISION SCHOOL)’로 하고, 캄보

디아어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이름은 ‘상징’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비전’의 의미가 확실한 단어로 바꾸어 ‘צללרררר’은 짜코위씨이کمព្រឹត្តិវិទ្យា’로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품은 학교, 교사들,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허가서류와 법인이 나오는 모든 과정과 소요되는 비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지인 교사 7명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교사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 기독교 사들과 함께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사 중 한 명인 팻랭 선생님이 질문이 있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왜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나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도행전 설교를 듣는 팻랭 선생님께서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차이와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었더니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라짜나’, ‘팻랭’ 두 분 선생님이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다른 선생님들도 선교적 믿음으로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 어려운 상황 속 나눔 사역 이어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눔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드쉐어 사역으로 아홉 가정에 매주 10kg의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특별히 등교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과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나눔 사역을 통해서 마을 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 네 분이 앉아서 약주를 하고 계셨는데, 지나가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르신이 부르시니까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들은 컴뽕뽕에 유치원을 시작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캄보디아를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농담도 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들의 영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구원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들은 대답이 없이 웃고만 계셨습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GPNEWS]

캄보디아=김현호, 나혜선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복음으로 회복되는 사람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진행 중이다. 다니엘 선교사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먼저 에티오피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누며 말문을 열었다.

## 에티오피아 내전의 본질은 오로모족과 티그라이족의 갈등

에티오피아는 현 연방정부의 집권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종족을 제거하기 위해 내전 중이다. 현재 에티오피아 총리는 2018년부터 집권한 아비 아머드다. 그러나 크리스천인 아비는 이전 민주주의 집권 세력이었던 티그라이 종족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오로모 종족들로 채우기 시작했다. 아비 총리 역시 오로모 종족이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4월에 치러야 할 선거를 연기했다. 이후 아비는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자신에 대해 반대 성향이 있는 티그라이로 가는 주정부의 예산을 끊어버렸다. 이후 티그라이족의 마지막 군장성들까지 퇴역시켰다.

티그라이족은 연방정부에서 티그라이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외신 기사를 통해 밝힌다. 이후 티그라이족은 연방군대의 무기를 탈취하게 되고, 아비 총리는 이것을 반란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정부군과 티그라이군의 충돌이 내전 상태로 발전했다. 그러나 아비 정권이 티그라이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종족 자체를 제노사이드(인종말살)하려는 정황이 서방세계에 덜미가 잡혀 미국 등으로부터 내전을 중지하라는 종용을 받는다. 그러나 아비가 이를 외면해 미국, 영국, 독일에서 원조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아비는 우방이었던 미국과 서방을 등지고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동맹국을 바꾸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A.D 333년에 역사상 3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됐을 만큼 신앙적 배경이 있는 나라다. 그러나 그 이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황제인 하일레 셀라시에 통치 때부터 정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해 성수를 팔았다. 이 뿐 아니라 성경을 침략하기까지 했다. 위클리프 선교사가 개신교 성경을 만들 때 정교회 성경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 번역된 NIV 성경도 그 영향을 받았다. 그 부패의 흔적이 개신교에도 영향을 주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1974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멩기스투, 그 다음을 이어 멜레스 제나위, 그리고 지금 아비 총리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근이 10년씩 찾아왔다. 그러나 교



복음으로 에티오피아를 섬기고 있는 다니엘 선교사

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크리스천인 아비가 총리로 집권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왔지만 부패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다니엘 선교사는 이러한 에티오피아에서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의 이유가 된다고 고백한다.

## 선교사들, 복지 지원 줄이고 영적 목마름 충전으로 사역 전환

- 에티오피아의 교회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이 나라에는 2200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지만, 이들이 소속된 교단 절반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외국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들이 그동안 이곳에 들어와 많은 재정 지원 등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은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교회 개척만 하는 추세예요. 현지인 가운데 선교사들과 성경공부도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로는 신앙을 확인할 수 없어요.

처음 에티오피아에 도착해 곤다르 지역으로 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무작정 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한 형제를 만나 인사를 하고, 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제가 이사를 한다고 했더니 자동차 등 필요한 것들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사를 마치고 한 달 정도 후 다른 곳에 차를 빌리러 갔는데, 그때 그 형제가 말했던 것

의 절반 가격을 불렀어요.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 형제니까 내가 많이 줘야지.’ 생각했어요.”

- 정착과정에 어려움이 많으셨군요.  
“지금은 그러려니 하게 돼요. 복음을 생존 수단으로 삼으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겠구나 생각해요. 이곳에서 지낸 5년 동안 핸드폰을 7번 소매치기 당했어요. 일반 버스를 타면 벼룩이 많이 옮아요. 우기 때는 특히 더 그렇죠. 이런 게 어려워져서 다들 차를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짧은 경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의 가난하고 부패한 상황과, 10년 마다 있었던 기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정말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캠프를 열게 된 것이기도 해요.”

- 복음캠프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7월 12일부터 5박 6일 동안 진행했어요. 계획 초기에는 한국의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정부의 비자 발급 중단으로 그분은 결국 오지 못하고, 결국 저 혼자 캠프를 섬기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제가 초대하지 않은 평신도가 오면서 사역자 한 명과 평신도 두 명으로 복음캠프가 진행됐어요. 이것은 두 형제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죠. 그중 한 명이 에프렐이

라는 형제예요. 60km 떨어진 곳에서 왔어요. 형제가 사는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요. 정교회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히지 않아요. 고어로 돼 있거든요. 설교도 고어로 해서 못 알아 들어요. 지금은 현대어로 하는 곳이 많이 생겨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겠다고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 주님의 섭리로 현지인 대상 복음캠프 진행

- 그분이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네요.

“그는 지금 27살이에요. 14세에 성중독에 걸려서 학교까지 포기했죠. 매일 여성이 있어야만 잠을 이룰 정도로 심각한 중독 상태의 형제였어요. 사탄이 그 영혼을 파괴한거죠. 돈을 벌어도 오직 그 일을 위해 벌었어요. 결혼을 해도 똑같았어요. 몇 명을 낙태를 했는지, 몇 명이 자기 자녀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이런 게 이곳의 모습이죠. 어느 날 개신교인인 그의 삼촌이 집에 놀러왔다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는 복음을 듣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성중독은 끊을 수 없었어요. 참다 못해 형제의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복음캠프 하기 두 달 전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에프렐은 충격을 받고 두 달간 헤매다가 복음캠프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어요. 그는 성중독 상태로 문란한 삶을 살면서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

“아베라라는 형제도 메시지를 잘 듣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못 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죄에 대한 내용을 강의할 때였어요. 사탄이 장난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형제를 좀 쉬게 하고 관찰자진 이후에 강의를 이어갔어요. 실제로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나 죄에 대한 설교를 했죠. 이곳에서 죄는 굉장히 낮은 설교 주제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야 교인들의 얼굴이 확 펴요. 교인들은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건짐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왜 죄인인지, 진짜 어떤 죄인인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니,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 그렇군요. 그러면 복음캠프 전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길거리 전도를 했어요. 현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사역자들과 신앙의 교제도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위치에서 교제하면 복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교제를 해요. 제가 가르친다고 하면 그들에게 뭐든 줘야 해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굳어졌어요. 이들은 저에게 한국교회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해달라고 해요. 재정 후원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나를 파송한 교회는 건물도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요. 한국은 잘 살지 않냐고 하죠. 그들이 보기엔 한국이 잘 사는 게 맞아요. 제가 형에게 물려받은 15년쯤 된 휴대용 전기



▲ 다니엘 선교사가 거리 전도할 때 사용하는 전도지. © 복음기도신문

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풀어갈 수 있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알 더군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당신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복음의 진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 세계관을 깨뜨리는 일이 쉽지 않죠. 다른 분들은 어땠나요?

불판인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갔는데, 현지인들은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저는 부자예요. 제 핸드폰도 한국에서는 구식이지만, 현지인들에겐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니 제가 돈도 없고 평신도여서 오히려 감사해요. 내가 우위에서 가르치면서 경제적으로 주기 시작하면 제가 하는 설교를 받아들이든, 아니든, 이들은 굉장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더 큰 죄, 더 큰 은혜 (6)

# 큰 죄인만 있을 뿐 적당한 죄인은 없다

더 큰 죄인만 있을 뿐, 대강(大綱) 죄인이라 없다. 오직 큰 죄인에게 임하는 더 큰 은혜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에 의하여 가는 그 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가는 길이요, 내 계산과 내 손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벧전 5:10)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맡겨진 삶이라면 기뻐하라.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는 더더욱 없다. 더욱 큰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싸개에 둘러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엄청난 복음을 받고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배반하고 하나님도 천국도 심판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없다. 그래서 결코 보편타당한 삶을 살 수 없다. 나의 어떠한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더 큰 죄인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께서 흑 비방과 환란 가운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셨다. 기쁘게 너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히 10:33-34). 주님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과는 족히 비교할 수가 없다(롬 8:18)’라고 말씀하신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의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은



일러스트=이예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신다(히 10:35).

복음 안에 있는 가장 큰 죄인인 내가 발견한 더욱 큰 은혜, 이 은혜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은 사람들과 열방을 살려낸다. 나는 소망 없고 무능하며 절망이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복음이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시며 불가능한 이 길을 가게 하신다. 실패한 이야기 같고 별볼일 없는 이야기 같으나, 인생을 뒤집어 놓고 참된 변화를 주는 복음이 바로 생명이 된 십자가 복음이다. 바울은 어떤 로마의 권세나 헬라의 철학 앞에서조차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이 복음을 자랑할 뿐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

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히 10:36)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육체의 연습만 해도 힘든 고비를 넘을 때마다 다른 지경이 열린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며, 더욱 큰 은혜가 있기에 인내하라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주님의 응답에 초점을 놓치지 말고 그분만 기대하라 하신다. 고난, 질병, 고생, 억울함, 답답한 심정,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터널, 기가 막힌 상황들과 막막한 절망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다면 기억하라.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지체치 않으시고 주님 곧 오신다. (2018년 5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복음 마스크 출시**

고철의 봉제선 없는 3D설계로 세련된 디자인, 빨아쓸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며 피부에 자극이 없는 100% 국내 항균원단과 제조기술은 기본입니다!

\*로고변경, 단체구입 문의가능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영원간병회에서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영원간병회는 열방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단체로 전국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일할 간병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도 간병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51-271-0171, 010-7227-2560  
협회장 김명숙 권사  
✉ sejy22@nate.com

## Interview

<5면에 이어>

###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히 은혜 받은 것처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예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인 것이 감사해요. 오직 저만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 선교사로 이곳에 오기까지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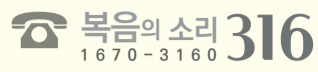
“과거에 제 삶에서 선교사는 한번도 생각하지 않던 영역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성공회 신부님과 빈민 사역을 같이 한 적은 있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 회사를 그만두고 빈민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의류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하고, 디자인, 판매까지 맡아서 하고, 빈민들은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나 1년이 좀 지나고 망했어요.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운영했거든요. 모두가 사장이자 모두가 노동자예요. 월급도 똑같이 주고요. 제가 82학번으로 대학을 다닐 때 공산주의 이론을 지지했었죠.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 공산주의는 이론일 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두가 사장이니가 늦게 출근하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나가서 제시간에 들어오질 않아요. 공장은 라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일이 돌아가질 않거든요. 결국 거래처에 납기일을 못 지키게 되고, 회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망하게 됐어요.” [GN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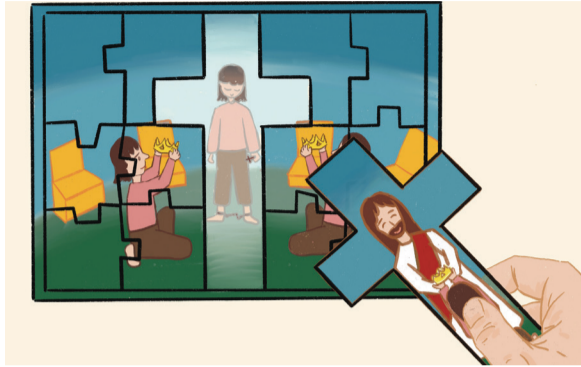
###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Q** 30대 자매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으로 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이고, 가족과 주위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그 사람이 전화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제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걸까요?

**A** 인간관계의 위기는 한두 가지 사건이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모든 결과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긴 일에 대한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잘못된 일의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는 생각은 아담의 죄로부터 생겨난 원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지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때,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 이미 나를 위해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영원한 복음을 믿는다면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분명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GPNEWS]

##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만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 언니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가난한 살림살이 때문에 미처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어린 우리들은 스스로 살아야 했다. 그런 환경에서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셨고, 부모님이 되어주셨다.



일러스트=고은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름 모범적인 열심 있는 모습이었지만, 나조차 속고 있었던 내 모습이였다. 결혼을 하면서 실제 나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났다. 성도들의 인정과 평판에 미쳐서 아이들을 쥐 잡듯이 잡았다. 사역자인 남편이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목사이길 원해 남편의 모습에 불만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의 끝에는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내가 있었다. 보이는 모든 상황에 따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던 나에게 주님은 은혜로 찾아오셨다. 처음 복음을 들려주시던 때,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퍼즐이 맞춰졌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도 있지만, 나를 건드리면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우울감이 찾아왔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고백도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 받고 싶고 주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고 싶은 자였다. 모든 것에 결론은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가?'였다. 이런 나에게 주님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찾아오셨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의 일

을 한다는 모양은 있지만, 실상은 주님이 내쳐 버리실 수밖에 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왔다. 그 후 주님은 우리 가정을 주님의 마음이 있는 선교지로 가게 하셨다. 그러나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발견되는 것은 더 흉악하고 더 교묘해지고 주님에 대해서 더 완악하게 된 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알아가게 하신다.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반역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여길 때,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계신 말씀을 내 심령에 선포하시며 영혼의 기나긴 고통의 싸움을 끝나게 하셨다. 지금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를 알아가게 하시는 시간이다. 내 책임에 대한 도피나 맡겨 주신 사역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의 막연한 기대가 아닌,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의 의지와 뜻대로 넉넉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의 삶의 온전한 태도와 감사와 순종을 알아가게 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여전히 뼈격대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날 나의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한다. [GPNEWS] 심영남



## 北, 국제사회 제재회피 능숙해져... 아프리카 안보에 심각한 위협



▲ 북한 고위 관리들과 남아공 대통령. 출처: thesouthafrican.com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 행위에 점차 능숙해지면서 북한과 연관된 아프리카 국가들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제기됐다고 지난달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23일 발표한 북한의 제재회피 수법을 다룬 최신 연구보고서(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Techniques)에서 북한이 2009년 첫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도, 이를 회피하는데 점차 능숙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제재회피를 통해 현 체제를 유지하고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 비용을 위한 화폐를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4가지 종류의 제재회피 행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행위, 주어진 화폐를 활용해 필수 원자재와 이중기술(dual-use) 및 제한된 기술을 구매하기 위한 행위, 북한의 개입을 모호하게 하는 은밀한 물품 수출 행위, 그리고 북한의 소유권

이 알려지지 않은 화폐, 귀금속, 보석 등의 국제적인 이동을 추진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또 이 같은 북한의 제재회피에는 4가지 유형의 집단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들은 북한의 대사관 관리들을 비롯해 해외 노동자, 위장 회사, 그리고 제3자 중개인들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 관련 제재회피 행위는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안보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38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동 중이며, 북한의 제재회피와 관련된 단체들은 잠비아, 우간다, 탄자니아, 이집트 등 아프리카 4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나아가 추가로 해당 지역의 안보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북한의 제재회피 관련 활동은 콩고, 리비아, 말리, 모잠비크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제재회피 활동은 특히 중동에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래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화학무기로 살해되기도 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제사회는 북한

의 제재회피 행위가 아프리카 지역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PNEWS]

### 北, 보상도 없이 산열매 채취에 주민 동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동원해 식품생산용 산열매를 채취하게 하면서 아무 보상도 없다고 최근 데일리NK가 전했다. 데일리NK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최근 도토리를 비롯한 산과실 채취에 주민들을 동원하라는 방침이 떨어졌다."면서 "산과실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채취하라는 게 당의 지시"라고 전했다. 북한은 매년 야산이 있는 전국의 농촌과 산간 지방의 주민들을 동원해 수백 톤의 열매를 채취하고 있으며, 주

민들은 산과일과 도토리, 다래와 머루와 같은 열매를 채취해 자신이 속해 있는 당 조직에 바쳐야 한다. 당적 과업이 내려오면 기업소, 기관 등의 당 조직 간부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주민들을 독촉한다. 주민들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다, 추수를 앞두고 반강제적으로 산으로 가야 해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성인 10kg, 학생은 5kg을 내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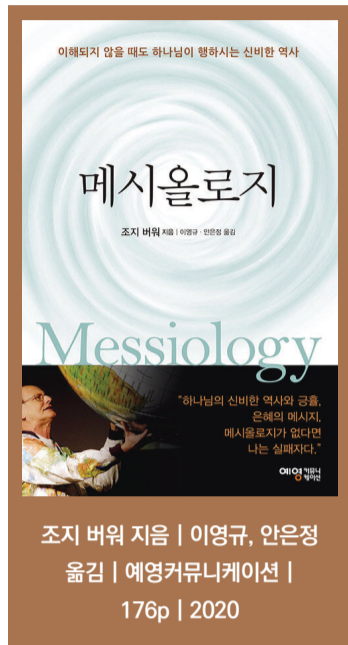
는데, 당국은 주민들이 채취한 산열매를 무상으로 가져가 식료공장으로 보낸다. 공장에서는 이 원료를 가공해 평양이나 군부대에 공급하고 남은 것은 시장에 팔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는 북한이 광범위한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특히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 강제로 노동에 동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G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조지 버워 <메시올로지>

#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일하지 않는다



약하고 영망인 면도 존재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돌아보니 나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흠결 많은 교회와 선교역사 모두에 '메시올로지'가 새겨져 있음을 본다.

국제선교단체 오웬을 세운 조지 버워가 지난 80년의 삶과 60여 년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며 몸소 체험한 주님의 은혜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책이기에 더욱 주목되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내겐 책 한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밑줄을 긋고 새겨야 할 내용들로 가득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걸어왔던 걸음과 삶이 내가 걸어가야 할 그것과 닮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고, 수없는 연약함 가운데서 더욱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리라.

그의 지난날의 삶과 사역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강력하다. 율법적이지 말라고, 독단적이지

어선 안 된다고,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된 삶을 살며 진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라고 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실수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또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하는 이 방법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경직됨.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적용들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생각해볼게 된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님도 늘 옳다고 하실까? 아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니, 주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영망진장인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새롭

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판하는 일이 많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여러 모양으로 권면하고 있다. 뒷담화나 입소문의 과급력에 주의하고 비난에 잘 대처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훈련하되 배우는 과정에서 율법주의를 주의하는 것, 일에 대한 지나친 강요와 훈련은 사람들에게 가식과 이중생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삶과 현실의 삶을 구분하지 않는 것, 영적인 강건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다.

또, 일과 가정, 충전하는 것과 활동하는 것, 사람들에게 열정을 쏟는 것과 가족들과 함께 휴식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것을 멈추게 되는 '시니어 증후군'을 조심하는 것,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기도생활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전력을 다하

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든 메시올로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영역과 관계에서 바라보면서 여유를 잃지 말라고 말이다.

그가 직접 언급했듯이 이 책의 결론적인 요점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음하심'이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선뜻 동의되기 어려운 부분이 정리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 각자가 여러 차례 영망진장이었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유난히 빛나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더욱 메시올로지의 은혜가운데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생생히 죽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메시올로지의 은혜가운데 살아가는 비밀이 아닐까? [GNNEWS]

양동원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 [광야에서 외치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 미국 한인 전도자들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 © 김희복

어제 전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한없는 위로가 부여되었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신다.”

보잘 것 없고 무익한 제가 통로 되어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붙잡는 이들을 보면 그저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

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8-10)

어제 오후엔 시간휴가를 쓰고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서로 밀착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귀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고2 남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남학생은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은 없는 듯 보이고 여학생은 불신자였습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내내 진지하

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전도명함(연락처)과 성경 소책자를 주며, 오늘이 영혼의 생일인 하나님을 만난 날(9.17)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친구에게 여자 친구를 위해 100일 후에 영혼의 생일파티를 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내게 연락을 주면 흔쾌히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에 다니는 고3 남학생 2명을 만났습니다. 올해 10월이면 반도체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에 입사하게 되고 월급도 받는다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사회에 진출했다고 학생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둘 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전도를 받은 적이 없고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 천지창조, 영혼,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도 전기 공부를 좀 했으며 사전 대화에서 충분히 신뢰감을 쌓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단계로 들어가면 언제나 제가 약간 긴장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학생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

원자이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죄 처리 문제, 교회출석 문제를 얘기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접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221번째~224번째 전도대상자인 고\*\* (고2, 남), 김\*\* (고2, 여), 서\*\* (고3, 남), 이\*\* (고3, 남) 군 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GNNEWS]

우석 집사



▲ 거리에서 전도하기 위해 모인 전도팀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 임치운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구독신청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1. 9. 9 ~ 9. 29 (가나다 순)

#### 개인

고은영 권혜령 김경선 김다경 김선례 김선희 김애심 김지영 김형숙 김혜신 박성규 박신희 박현숙 서미란 서범일 신경순 신은혜 심성식 윤경석 은종숙 이유미 이주선 이항구 장미자 정금자 조명숙 조재희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영신 최정숙 무명

####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고현교회 김화제일교회 목자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세순교회 시은교회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열방참사랑교회 오에그교회 은혜신일교회 참종양대리교회 하원교회 처음사랑교회 헬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